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대하는 자세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장면 하나

친구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 회의시간을 잡기 어려우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 달라고 해서 도착한 곳. 영어가 섞인 이름을 건성으로 듣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달려가 지하 주차장에서 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앞에 놓인 초현실적 상황에 나도 모르게 얼음이 됐다.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이 열리는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았고, 모두가 표정이 없어 더 그 리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모두가 노인이었다. ○○시니어타워라는 그곳은 꽤 알려진 곳에서 운영하는, 시설 좋기로 유명한 시니어하우스다. 그 경험은 ‘나이들면 시설에 가야지’라고 하던, 스스로 진심이라 믿었던 결심을 ‘절대 시설에는 가지 말아야지’로 바꾸게 했지만, 세상에 절대란 없으니 그 말도 선부르다. 이 글을 편견 섞인 악의로 쓴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길...

장면 들

몇 년 전 노인 관련 여러 전공의 융합 연구자들과 함께 갔던 일본 답사에서 주로 치매 노인들이 거주하는 고령자 임대주택에 들렀다. 동네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건물 문을 열고 들어서서 본 장면 때문에 우리 모두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우선 출입문을 살짝 밀었더니 잠겨 있지 않고 그냥 열려 있었고, 실내에는 노인이 아닌 젊은 엄마들과 어린 아이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그곳의 매니저가 우리를 맞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야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전 시간에는 그곳의 홀에서 ‘마마댄스(ママダンス)’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유치원에 가기는 아직 이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커뮤니티 댄스를 즐기며 땀을 흘리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그곳의 노인들과 어울린다. 물론 아이들을 유인하는 더 유혹적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입구 쪽의 구멍가게다. 아이들이 혹할 만한 다양한 알록달록 과자들이 놓여 있고, 계산은 그곳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하신다. 이 과자가게의 손님이 이 꼬마들뿐만은 아니다. 근처 초등학교가 파할 때쯤이면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 아이들이 줄을 잇는다. 하루 평균 100명이 다녀가고 월 매출이 300~400만 원이다. 댄스가 끝난 젊은 엄마들은 접어서 한곳에 몰아뒀던 테이블을 다시 배치했고, 그 방은 금방 식당이 됐다.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아이와 함께 하고 가는 엄마들도 있었고, 우리도 식권을 사서 점심을 먹었다.

이곳은 일본의 한 건설회사가 도쿄 주변 10여 곳에 운영하는 고령자 임대주택 중 하나로, 1인실 40개와 부부용 2개로 구성된 ‘킨모쿠세이(金木屋)’라는 곳이다. 건설회사에서 운영하니 초기 시공비가 적게 들었는데, 그 비용을 좋은 디자인의 공간을 만드는 데 썼다고 한다. 물론 이곳에서는 마마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곳의 특징은 경증 치매 노인들이 많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현관문을 개방해 둔 것도 안전을 이유로 억압하기보다 노인을 편안하게 유도하기 위함이다.



킨모쿠세이 입구



테이블을 다시 배치 중인 엄마들



입구의 과자가게

드디어 초고령사회

세상 많은 일에 ‘초’ 또는 ‘울트라’가 붙는다. 극단의 세상이다. 고령사회가 채 입에 붙기도 전에 초고령사회가 목전이다. 인구통계학을 통한 미래는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론 고정값은 아니라서 변수를 바꾸면 장기적인 값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2025년이 초고령사회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2025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의 문을 열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가게에서 머리 하얗고 허리가 구부러진 주인들을 많이 만났다. 그땐 ‘백년가게를 이어가는 노포가 많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초고령사회의 단면인 것이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7% 이상)에 들어갔고, 1995년 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2010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가 돼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

라'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 고령화사회를 시작으로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영국(50년), 스웨덴(42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뿐만 아니라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일본(15년)보다도 빠른 속도다.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초고령사회로 '늙은 사회'이지만, 진짜 문제는 사회 노화의 속도다. 성장의 시기에 고령화를 맞은 선진국들이 시간을 두고 사회적 대비를 해 나간 것에 비해 우리는 속도 문제와 더불어 저성장애 따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함께 만났다. 이렇듯 풀어야 할 사회적 숙제가 많을 때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가 고민거리다. 청년주택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인주택이나 노인 일자리 문제가 자칫 세대 간제로섬계임으로 보일 수 있어 염려스럽다.

인간의 한 생애를 설명하는 그래프를 보면 출생 이후 사회와 가정의 양육을 통한 성장 과정을 거쳐 온전한 성인이 되는 상승곡선, 경제활동 시기를 거치며 사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거쳐 다시 노화 단계가 성장단계의 역순을 밟으며 하강곡선을 그린다. 개인 간 격차는 어느 정도 있지만 소아청소년기의 성장은 보통 정규 분포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햇빛을 본 날의 수만큼 비슷하게 성장하고 자란다. 하지만 65세 노인이 되는 순간의 개인 간 격차는 어마어마하다. 건강한 노인과 아픈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으로만 30~40년을 살 수도 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을 하나의 코호트로 규정짓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일이다. 특히 지금부터의 노인층에는 교육받고 경제력 있는, 신체 건강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엄청나게 편입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러니 노인이 라는 용어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도시건축 전문가,
상류(upstream)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용어가 '위기'일 것이다. 기후 위기, 저출생 위기, 고령화 위기, 전쟁 위기, 고금리 위기, 양극화 위기 등 모든 단어 뒤에 위기를 붙여도 다 그럴 듯해 보이는 세상이다. 그게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의 거주환경은 지금 어떠한가? 혹시 이런 위기를 조금이라도 심화시키지 않았나? 공동체가 붕괴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든 도시환경이나 건축환경의 책임은 없는가? 약자들에게 친화적인가? 고독사뿐만 아니라 매년 약 2만 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한다는데, 우리의 책임은 조금도 없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어떤 도시, 어떤 건축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은 도시나 건축을 만드는 전문가일 것이다. 전문가란 일반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문가는 담대한 낙관주의자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문가는 비관주의자여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늘 상상하고 예민하게 센서를 작동시켜 다가올 위험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예방해야 한다.

<스틱>과 <스위치> 등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댄 히스(Dan Heath)는 그의 최근 저서 <업스트림>에서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에 지나치게 집중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업스트림 활동’으로 정의하고 행동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하류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상류에서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늘 목격한다. 보통 문제가 발생한 후 문제 해결에 잘 대응했을 때 칭찬받고 영웅이 된다. 그러나 상류에서의 작업이 잘 됐을 때는 공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도시·건축 전문가는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든다고도 하고 삶의 인프라를 만든다고도 하니 태생적으로 상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거의 불가역적인 것들이므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지 않았을 때 이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치러야 할 값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전문가로서 우리에게 늘 위기를 상수로, 초고령사회를 디폴트로 설정하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령 통합, 다양성과 포용성

필자는 50대 후반으로 아직 법적으로 노인은 아니다. 하지만 세월이 이리 쏠살같으니 조만간 공짜 지하철을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비슷한 또래들은 대부분 부모의 부양에 대한 고민을 지고 살고 있다. 부모의 모습에 미래의 나를 투영할 수밖에 없으니 노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 분명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상황들이 자신의 부모보다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필자도 오래전 마주해 각인된, 앞서 소개한 첫 장면만을 경험했다면 나이듦과 죽음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두려운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 두 번째 장면을 보았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밝고 수용 가능한 그 어떤 것이 됐다. 두 개의 장면이 고령자 주거 내부의 모습으로 한정된 상황이지만 그곳을 동네 또는 도시의 풍경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을 고령자를 위한 것으로만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정주환경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질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연령 통합성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초고령사회의 우리 도시와 건축의 미래, 아니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도시와 건축이 담아낼 초고령사회의 삶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분명 전문가이니 이미 앞선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또 전문가로서의 예민한 센서를 통해 분명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경험하지 못했으니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